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7. 11. 26 ~ 2017. 12. 9 제172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61.6%

정부, 17일 의회에 입법안 제출 계획

호주에서 지난 9월 12일부터 시작해 11월 7일까지 진행된 동성결혼 합법화를 묻는 우편투표 결과에서 국민의 61.6%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호주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 15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중 79%인 1273만 명이 참여해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호주의 가장 큰 도시들인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찬성률이 84%에 달했다.

시드니 도심의 한 공원에 모여 있던 수천 명의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우편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며 곧바로 신속한 합법화를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멜컴 턴볼 호주 총리는 “그들은 공정성을 위해 ‘찬성’에 투표했다. 또 약속을 위해, 사랑을 위해 ‘찬성’에 투표했다.”면서 “이제 이것(동성결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호주 의회가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지만, 턴볼 총리는 의회가 투표 결과를 존중할지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반대파들을 설득하기 위해 7600만 달러를 투입해 투표까지 실시한 호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해, 크리스

마스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은 우편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투표를 위해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토니 애벗 호주 전 총리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NPNEWS]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로마서 8:6~8)

기도 |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정욕에 이끄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 요르단에 위치한 자타리(Zaatari) 난민캠프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 뒤에 넓게 펼쳐져 있는 컨테이너 집들은 시리아 난민들의 보금자리다. 6년 전에 만들어진 이 난민캠프엔 이제 전기도 들어오고 상점과 학교도 생겼다. 학교 앞 아이들의 간식을 파는 좌판상점도 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도

망쳐 나온 이들은 새로운 안식처를 갈망하며 임시로 이곳에 머문다. 난민촌에 모인 사람 중 이곳에 영원히 터 잡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잠시 머무를 곳에 터를 잡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거품난 성도들도 역시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선 터를 잡지 않는다. 그들에겐 영원한 분향,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은 매순간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며 자기의 넉넉한 것으로 지체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복음기도동맹, 바로 우리의 삶이다. [GNPNEWS]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립보서 3:20)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47)

다른 종교를 믿어도 평평거리며 잘만 살던데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평평거리며 살고 싶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종교를 원하시는군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확실히 해결해주는 종교가 있다면 사람들은 의례 그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당신도 끼어 있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인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 그것은 결국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며, 숭배

하고 있는 대상은 신이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철저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선행조차도 그 만족의 대상은 오직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무얼 얻어내려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주위의 물건들을 보십시오. 모든 물건들에

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대로 쓰일 때 존재 목적이 가장 합당한 물건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존재 목적에 가장 합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하여 많이 가지고 건강해도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언짢으시다고요? 그러나 제가 언제 가장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입니



일러스트=김경선

다. 당신이 자아를 숭배하는 한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행복의 조건은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 뉴스** | 한국 “위기의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2면
- 기획** | 2017 다시복음앞에 복음기도동맹군 발굴해낸 다시복음앞에 7년 대장정 3면
- 인터뷰** | 윤주형 목사, 찬양 사역자 주리 5면
- 뷰즈인 아트** | 로마에 온 편지 성경 입체당송 ‘로마에 온 편지’... 큰 여운과 감동 8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위기의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한국순교자의소리 에릭 폴리 목사, 화~금요일 정릉에서 예배와 성찬식



제공: 한국순교자의소리

한국 교회의 회복과 이 나라의 변화를 소망하는 한 미국인 목사 부부가 서울 정릉의 고가도로 밑에서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설교문을 선포한다.

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 에릭 폴리 목사 부부는 매주 화~금요일 오전 6시에 한국 초기에 활동한 기독교 순교자들의 말씀을 낭독하고, 성찬식을 갖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11월 22일 첫 예배를 갖는 폴리 목사는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한국 교회가 초기 기독교인들의 ‘불로 연단한 금’ 대신 서구의 새로운 신학적 싸구려 보석과 장신구들을 신앙으로 대체해버린 탓”이라며 “초기 한국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 해결책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이같은 예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부인 현숙 폴리를 만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폴리 목사는 지난 15년 동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섬겨 왔다. 이 과정을 통

해 그는 폐쇄적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의 기독교보다 훨씬 더 초기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북한의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 죽고 진리를 위해 살고자 순교자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폴리 목사는 초기 순교자들의 목소리를 낭독한 성도들이 매일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고백을 녹음, 방송하기로 했다. 이 예배는 앞으로 화~금요일 아침 6시에 30분간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가슴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교신 선생이 한국을 위해 매일 아침 부르짖었던 장소인 정릉 고가도로 밑에서 진행된다. 이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 유튜브, AM 및 단파라디오 등을 통해 중계된다. 메시지 선포와 성찬식으로 진행되는 이 예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02-2065-0703 [GNPNEWS]

아시아

中, “예수 대신 시진핑 사진 걸어라”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의 가난한 마을에서 정부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 예수 대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사진을 걸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주민의 10% 가량

이 기독교인인 중국 장시(江西)성 위간(余干)현에서는, 현지 정부가 빈곤 퇴치 사업을 하면서 종교 대신 당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 100만 명의 전체 인구 중 11%가 빈곤 인구로 분류되는 위간현 정부는 빈곤 지원금을 받길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거실 등에 걸린 예수상이나 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시 주석의 사진을 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진부(黃金埠) 마을 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인 치옌은 “많은 빈곤 가정은 가족의 병 때문에 가난에 빠져들었지만, 일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 “병

이 든 것은 물리적인 것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당과 시진핑 총서기라는 점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부는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5000~6000가구가 기독교 가정으로, 황진부 정부는 1000장 이상의 시 주석 사진을 배부해 각 가정에 걸도록 했다.

한편 시 주석의 집권 후 공산당의 영도가 강조되면서 종교에 대한 억압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장시성과 저장(浙江)성 등에서는 십자가와 성화 등을 가정과 교회에서 없앨 것을 강요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6~11.19)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짐바브웨 쿠데타... 무가베 37년 독재정권 막 내리나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93) 대통령이 군림해 온 짐바브웨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1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군부의 ‘대변인’은 이번 정권 장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초래한 ‘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님, 정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빼앗으려는 사람도 모두 행복을 갈망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완전한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과 안식을 허락하십시오.

프랑스 ‘성관계 최소 연령’ 법으로 정한다

프랑스 정부가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적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이날 프랑스 RTL 라디오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가 13세라고 말했다.

오, 하나님. 13살 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영혼까지도 성적으로 타락시켜 완전히 사로잡으려는 사탄의 계락을 드러내주십시오. 다시 한 번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이 프랑스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너진 교회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드러낼지어다!

뉴델리 “1주일째 가스실”... 주먹구구 대응 탓 지독한 오염 지속

인도 수도 뉴델리가 초미세먼지로 1주일째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짙은 스모그에 휩싸여있지만, 정부는 차량 출퇴차를 시행하려다 취소하는 등 뾰족한 대기오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인도 NDTV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나님, 스모그로 인해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지금과 같은 뉴델리의 상황이 진리의 빛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사 복음의 빛 앞으로 나와 참 생명을 얻는 기회로 삼아주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1월 27일 ~ 12월 9일

11월 27일~12월 2일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최*)010-4202-0079
- ▶ 전남 광주 / 광주예수마음교회 (최**)010-3380-5781

11.23~12.1(매일 14시~19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 11.27~28, 30~12.1(매일 10~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1.27~12.2(매일 08~20시)

- ▶ 서울 금천 / 예향교회 (박**)010-4004-4326
- ▶ 11.30(06시~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2.1(08시~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 12.1(22시)~2(22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12.2(06~18시)

-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
- ▶ 12.2(06시~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2월 4일~9일

- ▶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

- (이**)010-3737-3629
- ▶ 12.4~5,7~8(매일 10~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2.4~8(매일 14시~19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 12.6(06~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2.6(00시~24시)

- ▶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010-8268-6879
- ▶ 12.7~9(매일 07시~19시)
- ▶ 전북 전주 / 전주은혜샘교회 (정**)010-4272-9905

12.8(08시~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 12.8(22시)~9(22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알림

본지, ‘오늘의 열방’ 뉴스 등 인터넷신문에 매일 업데이트

본지를 발간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단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매일 열방의 소식을 모아 정리한 ‘오늘의 열방’과 최신 열방의 주요 뉴스를 발굴, 인터넷신문(gnpnews.org)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소식들은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가입자나 신청자에게 매일

전달되고 있으며, 독자들은 이 정보를 기도모임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본지 온라인 독자들은 본지가 제공하는 열방의 소식 등을 활용, 기도자들과 나누며 기도하고 있다. 한 선교사는 매일 소셜 미디어로 교체하는 수십 명의 지인들에게 이 정보에 담긴 열방 소식을 나누며, 열방을 품고 기도

하는 기도자들이 열방을 품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음기도신문에 소개된 믿음의 글들을 낭독 형식으로 정리한 ‘오디오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등 본 선교단체가 자체 제작한 자료들도 유튜브와 팟빵, 팟캐스트 등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GNPNEWS]

복음기도동맹군 발굴해낸 다시복음앞에 7년 대장정

2011년부터 외친 다시복음앞에... 선언문, 행동강령 남겨져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2017 다시복음앞에 (Return to the Gospel) 오직 믿음으로' 대회가 끝났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돼온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체인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진행된 다시복음앞에 대회가 7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다시복음앞에 대회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허락된 완전한 복음 앞에 감격하며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동맹군들의 염원을 담아 '오직 복음으로'의 슬로건으로 2011년에 시작됐다. 이어 2013년 '오직 성경으로', 2015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년 '오직 하나님께 영광'(특별 집회), 그리고 2017년 '오직 믿음'까지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외치며 달려왔다.

매 대회마다 수 백 명의 섬김이와 수 천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다시복음앞에'는 복음과 기도로 삶의 결론을 내린 그리스도인이 모여 흔탁해져 가는 이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며 믿음인지를 재천명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영혼들을 '복음기도동맹군'으로 모병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

기까지 일평생 함께 달려갈 동지이자 전우로 하나 되게 한 대연합의 장이었다.

2011년을 돌이켜 보면 '복음기도동맹군'과 '다시복음앞에'라는 말은 우리에게 낯설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되었고, 외치고 또 외칠 신앙고백이 되었다. '다시복음앞에'를 통해 복음기도동맹 선언문과 7대 행동강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삶의 기준으로 제시됐다. 7대 행동강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성경에 계시된 완전한 '복음', 조건 없는 '연합', 순종해야 할 '권위', 모든 것의 주인되심을 믿는 '소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복음에 합당한 지침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같은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인정한 복음기도동맹군의 등장은 사람의 힘으로 이뤄낸 성취가 아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이름이었고, 외침이었다. 그동안 이같은 행동강령에 동의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한 복음기도동맹군은 1만 3000여 명에 이른다.

다시복음앞에 대회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주님은 선교완성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GNPNEWS]



▶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으로' 주 대회장. 현수막 전면 오른쪽에 여러고성의 라합을 생각나게 하는 붉은 줄이 보인다(위).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담은 현수막이 전시되어 있다(아래).

“무대 전면에 드리워진 붉은 줄, 구원을 상징”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으로' 대회장은 각종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가득했다.

집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시그널로 찢고 들어온 대회장 정문 현수막부터 주 대회장으로 사용된 본당 내부와 지하 2층 통합부스에 설치된 플래카드까지 이번 대회에 사용된 크고 작은 현수막은 이십여 장이었다. 이같은 현수막을 구상하고 제작한 디자인국의 유정덕 선교사를 만나, 이번 행사 디자인의 컨셉을 물었다.

“오직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때 주님이 라합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 시대의 세상은 여러고성이었죠. 그곳에서 라합은 생명을 내어 놓고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노아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붉은 줄이 내리워졌던 라합의 집. 붉은 줄을 매달면 구해주셨다면 약속을 믿었던

식구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장 안의 커다란 현수막에는 붉은 줄을 드리웠습니다. 그 강한 여러고 성읍에서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현수막에 담은 오직 믿음의 증인

대회 기간 중 선한목자교회 지하 2층에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수막에 담은 전시공간이 마련됐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만 반응했던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과 중세교회의 역사적 인물들, 안 후스로 시작하여 마틴 루터, 진젠 도르프, 프랑케,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현수막으로 제작돼 관람객의 발길을 기다렸다.

경건의 삶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종교적 관행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다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냈다. 개인의 존재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될 때에 경건한 삶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이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맞은편에는 또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복음기도 동맹군들의 삶의 원리를 나타낸 복음기도동맹 선언문과 '복음, 기도, 예배, 선교, 연합, 권위, 소유' 7가지의 복음기도동맹 행동강령을 제시한 전시물들이 소개됐다.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사이에는 복음으로 연합된 복음기도동맹군들의 이름이 어우러져 예수님의 얼굴로 새겨졌다. [GNPNEWS]

전세계 32개국 현장 선교사 인터넷으로 대회 참여

온라인뉴스 수만 뷰 조회... 40여 개국에서 접속해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가 집회 현장의 영상과 다양한 소식을 정리한 기사로 해외에 생중계되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동역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대회 사무국은 열방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집회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

중계했다. 이에 따라 복음기도동맹 단체 파송선교사들은 거주하는 전세계 32개국에서 인터넷으로 대회에 참여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스리랑카, 인도, 키르기스스탄, K국, L국, N국, P국의 8개국,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르완다,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M국의 9개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알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의 9개국이다. 그 외에도 러시아와 중동의 이슬람권 국가인 O국 등에서도 영상으로 대회에 참여했다.

또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 미디어 선교사와 동역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회 홍보국은 대회 개최

하루 전인 10월 30일부터 3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회 현장 소식을 기사와 영상뉴스로 정리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대회 전용 뉴스사이트(rttg.gnpnews.org)는 매일 40여 개국에서 접속, 총 조회수가 수만 뷰(view)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외에서 영상으로 집회에 참여한 한 선교사는 인터넷이 원활한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폭동

지역을 지나가는 위험을 감내하는 등 열방 곳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 대회에 참여했다.

L국에서 영상으로 대회에 참여한 한 선교사는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 음성으로만 참여했다.”며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땅 끝에서 한국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길 함께 중보했다.”고 말했다. [GNPNEWS]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는 3박4일간 새벽, 오전, 오후, 밤시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모든 강사들의 메시지 요약문은 2011년 대회부터 이번 대회의 모든 내용을 수록한 전용 사이트 다시복음앞에 뉴스(rtgg.gnpnews.org)에 게재돼 있다. <편집자>

3박 4일간 진행된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으로' 대회에서는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들이 선포됐다. 특별히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에 맞춰 '바라는 믿음', '전쟁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다시 복음 앞에'라는 다섯 가지의 소주제를 시간대별로 구성했으며 국내외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자들이 메신저로 나섰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새벽시간을 맡은 '바라는 믿음'에선 바랄 수 없는 열방의 상황 속에서 그 날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선교사들이 선교현장의 소식과 함께 오직 선교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외쳤다. P국의 K선교사는 "11년간 사역하면서 본 중남미교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으며 복음은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내 모습을 보았다.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나는 비록 선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며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중남미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면 가능하다."고 외쳤다. 이어 다음날 A국의 K선교사도 "지금 열방은 전쟁터와 같다."며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삼켜려 해도 교회는 넉넉히 이긴다. 이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믿음인데, 약속하신 분이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V국에서 소수부족사역을 하는 L선교사는 "바라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며 "V국 기독교 100년 역사와 나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결국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전쟁하는 믿음'

오전 시간을 맡은 '전쟁하는 믿음'에선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무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전쟁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다. '세계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서 전쟁해야 한다."며 "가나안적 사상과 세계관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름'의 차원으로 변질시킨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라면서, "하나님의 성도는 음란과 싸우기 위해 거룩으로 무장하고 다니엘처럼 구별된 자들로 서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이재만 교수(창조과학선교회)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어지는 '지질시대' 그대로 존재하는 화석 증거는 지구 어디에도 없으며 다만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만 있다."면서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다. 진화론의 거센 바람에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쓰러졌지만 우리 자녀들은 진화론의 종이 되지 않도록 타협 없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하자."고 피력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은 대회기간 중 오후 첫 번째 시간에 선포됐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라는 고백으로 금홍사역과 교육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는 믿음이어야만 한다'고 외쳤다. 첫째 날 강의를 맡은 박종진 선교사(헤브론선교대학)는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나타난 믿음을 설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헌신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계시된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여기까지 계승돼 왔다."고 외쳤다. 또 조완순 선교사(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은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면서 "정말 세상을 섬기고 싶다면 하나님과 복음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우리의 다음세대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김정화 선교사(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ShAM)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라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 곧 사랑의 통로로 세우셔서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이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신다. 한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생명 다해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외쳤다.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이어 오후 두 번째 시간에는 '살아있는 믿음'의 진리가 선포됐다. 메신저들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신학과 교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지를 설교했다. 전 에스라성경대학원 총장이었던 민경동 장로는 "말씀을 듣는 것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면서 "그 가운데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는 "사탄의 어떤 시험에서도 이길 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셋째 날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 의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소유하게 되며 처음엔 믿음으로 구원 받고, 이후엔 행위로 상급 받는 것이 아닌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이야 한다."고 선포했다.

오늘도 '다시 복음 앞에'

대회의 저녁시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 앞에'의 주제로 말씀이 선포됐다. 첫날 강의를 맡은 하도균 목사(서울신학대학교)

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여전히 그들의 방식을 고집했다. 그러나 오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믿음이 '경험되고 있는 믿음인지'에 대해 도전했다. 또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이 구호에 그치면 안 된다."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린 아이가 일어서서 걸으려면 3000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외쳤다. 이어 마지막 날 강의를 맡은 김용의 선교사(LOG미션)는 "성경의 결론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준비해 주셨다."며 "기가 막힌 운명 가운데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젠 믿는 것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을 끝내야 한다."며 "내가 주인 되어 왔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분기점을 오늘밤 찍어야 한다."고 도전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진검승부

이 외에도 대회의 개회와 폐회를 위한 메시지도 선포되었다. 김용의 선교사는 개회예배에서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의 중심을 바꾸고 천지가 개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복음 밖에 없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며 대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또한 배철희 목사(충신감리교회)는 폐회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섰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오직 믿음, 진짜 믿음, 진짜 제자로 사는 믿음의 진검승부가 있어야 한다."며 "나를 위한 삶을 끝내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자."고 믿음의 순종을 촉구했다.

[GNPNEWS]



2017 다시복음앞에 나눔&나눔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한 심령의 전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다. 그분의 소유가 된 심령의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그래서 영광이다.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에서 찬양 인도로 섬겼던 윤주형 목사(수영로교회 R3 Worship)를 대회 중 만났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찬양인도자로 잘 알려진 그는 현재 부산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 찬양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들었다.

- 이번 대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복음기도동맹에서 다시복음앞에 대회에 찬양 인도를 요청해왔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도 찬양 사역자이기 전에 성도고, 그리스도 인입입니다. 야성적이고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죠.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복음을 듣고 다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싶었습니다.”

-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의 찬양팀은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이번 대회 찬양팀에는 수영로교

회를 섬기고 있는 'R3 Worship'팀원들도 있고, 이전에 함께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을 섬겼던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 팀을 꾸렸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어렵게 휴가를 내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대가 지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 찬양곡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이번 대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지 투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의 영광이 선명하게 비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중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복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 이번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주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세요.

“어느 한 가지를 꼽기가 어렵지만, 특별히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



찬양사역자 윤주형 목사

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큼니다. '로마에 온 편지'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저뿐 아니라 저희 찬양팀 모두가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퍼포먼스를 하는데, 제 안에 '정말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교육,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겠다

는 도전을 받았습시다.”

- 종교개혁 500주년이 목사님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올해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구텐베르크 성당에도 다녀오고, 루터생가도 방문했어요. 그렇게 순례하면서 많은 목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이 떠올랐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에는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시즌이 찾아온다고 해서 부흥과 개혁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그 시절을 기억하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그때와 같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루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루터와 같이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제 안에서부터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복음은 믿고 순종할 때만 능력이 됩니다. 귀로 듣고 답아만 두는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죠. 이 대회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녹록치 않은 상황 앞에서 세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경험한 펄떡이는 복음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원형의 생명을 노래하고 싶어요”



찬양사역자 주리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한 '천 번을 불러도'라는 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 CCM 가수 주리가 이번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 둘째 날 특송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이번 대회 순서자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참가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을 만큼, 말씀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을 노래한 그녀를 만났다.

- 이번 대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2011 다시복음앞에 집회에 특송으로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연락을 주셔서 오게 되었어요. 저도 복음기도동맹 단체인 순회선교단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은 마음으로 친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부탁하셨을 때 기쁘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 특송으로 부른 '그 사랑이 나를'

의 뮤직비디오가 인상 깊었습니다. 제작 배경이 있나요?

“원래 알고 지내던 영상 감독님이 최근 일주일간의 복음훈련에 다녀온 이후, 계속 '그 사랑이 나를'이라는 제 노래를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과정에서 들은 '두 형제 이야기'를 그 곡과 접목시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만들게 됐어요.”

-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앙의 전환점이 있었나요?

“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의 모습에 절망을 느꼈죠. 그때 제 안에 성령님이 일해 주셨고 깊은 기도와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저의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죠.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없이 가라앉았

어요. 내가 주인인 삶이었죠. 그 즈음 총체적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셨고 '그런 나를 대신 해서 죽으신 분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 나는 나음을 받았구나. 내 존재는 이제 완전한 예수생명이구나!'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나는 여전히 어설피지만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대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은혜를 부여주셨어요.”

- 은혜네요. CCM 가수로 활동을 하시며 대중들에게 알려지셨는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는 없으셨나요?

“워낙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겨 왔기 때문에 제게 찬양사역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특송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을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CCM 가수

로서 내 이름을 알아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녹이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어요. 좋은 위로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흠이 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원형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흠 없는 생명으로 감추어졌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요.” [GNPNEWS]

믿음의 증인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 왼쪽부터 김승년 집사, 이현삼 선교사, 레오니드 김 목사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에서 각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증인들의 고백이 선포됐다. 대회 기간 중 영상간증 이외 현장에서 나눠진 믿음의 고백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예수와 십자가면 충분한가? 아니오! 넘칩니다!”

김승년 집사

저는 10살 때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성장하면서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채울 수 없는 한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고자 35년 동안 마약, 술, 음란에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겉모양은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 교회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집사, 세상에서는 예의 바르며 의리의 사나이처럼 살았지만, 내면에서는 온갖 흉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제일 추하고 더러운 것들만 남은 자신을 보았을 때 목숨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복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2년이라는 고민 끝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의 전 부였던 38년의 사업을 내려놓고 6개월 합숙 훈련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내겐 죽기 전에 꼭 알고 싶었던 질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강원도 안흥이라는 시골 산골짜기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초점을 주님에게 맞춰 놓으시고 그분의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은혜라는 단어가 진정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내가 마약에 푹 빠져 죽어가고 있었을 때도 내 두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면 충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나의 내면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부패하고 병든 자아, ‘나, 나, 나’를 고집하는 자아 숭배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반역하는 사탄 숭배라는 것을 진절머리가 나도록 보

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복음 앞에 세우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준비해 주신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는 십자가의 비밀이 실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내게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삶, 오직 복음과 기도로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선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결론이 되니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건, 숫자에 상관없이 준비된 영혼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이상 선교사 이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결론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와 십자가면 충분하냐?”, “아니오! 넘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삼 선교사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중2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철저히 내가 잘 하고 있어서 구원 받는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후 짓게 된 음란의 죄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역과 사람들에게서 도망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웃리치 중 일어난 큰 교통사고를 통해 선교사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주위 선배들의 권면을 변명삼아 선교사가 아닌 대

학졸업, 군입대, 결혼, 출산, 회사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성과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리화하는 이중계약과 술자리, 성적 타락과 음란함... 죄에 대해 감각하지 못하는 저는 문둥병 걸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2012년 완전하고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갈 2:20)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제 영혼은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후 기쁨 중에도 분노와 열기에 사로잡혀 아내와 몸싸움까지 하는 제 자신은 여전히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어 주셨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다음세대와 함께 했던 러시아 아웃리치 중 한 사건을 통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자야개발 업무와 강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터에서 떠나야만 살 수 있기에 15년을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죽음의 시간은 세상나라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6개월 동안 복음 앞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믿음의 싸움 끝에 집을 정리하고 전세 계약금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저희 가족을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고품격이 올라오는 반지하 좁은 방에서 큰 아이 천식이 재발하고, 아웃리치 중에 작은 아이가 함께 사는 가정의 형에게 맞아 돌아왔을 때 제 안의 분노와 복수심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돌아서고 싶어 눈물로 베개를 적시다 잠이 들 때면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개월여의 공동체 삶 이후 주님은 저희 가정을 ‘그 날을 기다리며 서 있는 문지기’로 태국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저는 청소와 시설관리로 밤 하고 청소하면서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번의 대상포진과 아내의 유산에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꺾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충성을 보았습니다. 그런 충성스런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저희도 맞으러 달려가야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레오니드 김 목사

제 이름은 김 레오니드입니다. 저는 구소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우즈베크 시민권자가 되었고,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41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1991년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최야콥이라는 한국 선교사가 미국에서 타슈켄트로 왔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 성경공부에 나갔고, 얼마 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우크라이나 르보프로 가서 4년간 섬겼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모든 민족을 위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한국인, 카자흐스탄인, 우즈베크스탄 등이 모입니다.

저에게 있어 복음이란 좋은 삶, 기쁨과 평안, 많은 헌금으로 선교사를 돕는 것, 훌륭한 목사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목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2016년,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갈 2:20) 새롭게 복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오직 복음, 회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는 예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이를 믿을 때 저는 특별한 기쁨과 만족,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매주일 예배 후 우리는 기타와 복음 가지고 거리로 나갑니다. ‘브루클린’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 권에서 온 이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택하사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삶에서 실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오직 그분만 찬양합니다. 저에게 증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GNPNEWS]

대회 이모저모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3박 4일의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기간 동안 맨바닥에서 잠을 자며 숙식하는 야전 상황임에도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밝고 환한 표정이었다. 모처럼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영육의 양식을 누리는 기쁨으로 작은 불편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강사들이 풀어내는 고백 속에 심어진 진리. 함께 참석자들과 나누는 믿음의 고백은 또 한 편의 감동적인 메시지였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집회 참여소감을 모았다. <편집자>

대회가 시작될 무렵,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88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쉽지 않음에도 이번 대회에 참석한 홍정숙 성도(빛과소금교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에 더욱 말씀을 듣고 싶어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3박 4일의 합숙 환경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은혜의 말씀이 나의 머리와 가슴 속에 새겨져 그 말씀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그 날까지 살아갈 소망입니다.”라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대회에 참석한 김

경선 자매(33.남서울은혜교회)는 “2015년 다시복음앞에 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선교훈련과 기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주님을 기대함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대회나 훈련을 통해 변화된 나를 기대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제 안에 주님만 남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두 자녀를 데리고 온 김수정 성도(40.김해동서남북교회)는 “아이들이 학교를 빠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많이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손을 붙잡고 왔습니다. 아이들도 모태신앙인데,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참가자들의 고백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무언가 결정할 때는 항상 말씀보다 내 상황에 타협하던 것을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8살짜리 아들을 양육하며 성경 한번 읽어 준 적 없고, Q·T도 공부에 밀려 소홀히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벌써 진화론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한 걸 회개했어요. 주님이 온전한 통로로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려고 부모의 자리에 세우셨을 텐데 믿음 없이 행한 저를 보게 하셨어요.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서기로 결심했어요.”(연희성.41.홍콩한국선교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 교회에 가지 못했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불신자와 같은 제가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리는 시간이었어요.”(박소정.26.허브교회)

“모든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이전에 들었던 복음과 너무 달랐어요. 정말 복음만이 살길이고 복음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할 거예요.”(김은숙.57.평화장로교회)

“승리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당연히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에서 다음 세대들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

인지 보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대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이영희.43.속초중앙교회)

“상황이든 마음 안에서든 날마다 우리 안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강의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최은

숙.64.새싹교회)

지난 2011년부터 다섯 번째 참여하고 있는 강성열 목사(74.전라도광주)는 “은퇴한 이후, 동기들과 모이면 주로 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늘소망을 더 나눠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 집회를 통해 저를 비롯해 한국의 목회자들이 복음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길 소망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이때에 성경을 붙든 사람들이 누렸던 승리와 아름다운 발자취를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남겨주기를 소망합니다.” [GNPNEWS]

‘오직 믿음으로’ 대회의 재정 원칙도 ‘오직 믿음’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으로’ 대회의 운영원칙도 오직 믿음이다. 2011년 첫 대회부터 모든 재정의 주권이 주님이심을 신뢰하고, 현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수천 명이 며칠간 숙식을 하는데 회비가 없이 운영이 될까? 이번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의 강영선 간사를 만났다.

– 참가비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다시복음앞에 대회는 지난 2011년 1차 대회부터 현금으로만 운영하는 원리를 이어오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의뢰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회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부터 저녁 금식기도를 할 만큼 다급할 때도 있었어요(웃음). 그런데 대회운영 원칙은 단순히 필요한 재정을 현금으로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죠. 한 분 한 분의 재정이 아닌 온 마음이 담긴 믿음으로 대회를 이루어 가고 싶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이죠.”

– 혹시 재정이 부족해서 운영에 차질은 없었나요?

“사실 재정은 시작할 때부터 부족했어요. 큰 금액이 입출금되는 통장을 만드는 일조차 가

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괜한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대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통장개설도 가능케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모두 채워주셨어요. 저의 믿음은 부족하고 차질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고 완벽하셨어요.”

– 대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현금이 있나요?

“주하(주님이 하십니다), 주이(주님이 이루십니다)의 무명으로 오는 현금이에요. 이런 현금의 끝자리는 몇 천, 몇 백, 몇 원으로 입금되더군요. 원 단위까지 보내온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금액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렵돈 같은 믿음이 전부된 재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고 계심을 확증하게 돼요.”

– 다시 또 재정을 담당하는 섬김이로 불러 주셔도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나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도 전 할 수 없어요. 각 부서에 재정을 공급하고 운영을 민감하게 하나 하나 신경 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부르셔도 아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기에 순종할 수 있었으니까요.” [GNPNEWS]

섬김을 삶의 방식으로... 참가자의 30%가 섬김이

이번 다시복음앞에 대회의 섬김이들은 모두 700여 명에 달했다. 참가한 전체 참석인원의 30% 정도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강의 선포되는 주 집회장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복음과 기도의 삶을 선택한 이후, 섬김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결정한 증인들이다.

이들의 섬김 덕분에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선한목자교회는 어느 곳을 봐도 청결함이 유지됐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으로 가능케 한 몇몇 섬김이들을 대회 기간 중 만났다.

110명으로 구성된 시설관리부는 배식, 컨트롤, 청소, 고장 난 시설물 관리 등 삶의 현장과 친밀한 자리에서 굿은일을 도맡아 했다.

시설관리부 안에 속한 청소팀은 형제 두 명, 자매 다섯 명, 총 7명이 소속되어 있다.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은 화장실, 홀, 계단,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각종의 모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다. 청소팀을 섬긴 강선희 선교사는 “집회 첫 날 모든 팀원들이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주님의 부르심을 확정한 이후,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갔다.”고 말했다.

또 시설관리부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예외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체 건강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특별 임무조’도 있다. 특별히 정해진 역할 없이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상황에선지 출동해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긴급 대응하는 섬김이다.

이 특별 임무조로 배정된 김은혁 형제(22.군복무 중)는 “휴가 일정을 맞춰 나왔다. 섬김이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섬기면서 비록 육체는 고

단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해져 잠깐이라도 허락된 예배와 강의 메시지가 더욱 강력하게 들렸다고 한다. 섬기게 하시는 모든 순간 역시 예배 가운데 드러지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며,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섬김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오직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됐다고 고백했다.

섬김은 특별한 한 사람 혹은 대단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다. [GNPNEWS]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헤브론원형학교 <로마에 온 편지>

성경 입체낭송 '로마에 온 편지'... 큰 여운과 감동

헤브론원형학교 학생 30여명, 말씀이 살아있는 20여분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 둘째 날 특별 순서인 헤브론원형학교의 성경 입체낭송 '로마에 온 편지' 순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청중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 학교 30여 명의 학생들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22절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입체적으로 외우며 아멘을 선포하자 객석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찼다.

특히 로마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21절이 시작되기 전 모든 학생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표현한 침묵의 시간은 모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시간이었다.

1분여의 적막 후, 절망으로 쓰러졌던 학생들이 한 두명씩 차례로 흐느끼며 일어나 죄를 회개하는 모습과 함께 '이제는 율법 외에 하

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가 목청껏 외쳐질 때 모두가 '그 의'로 살아났음이 가슴에 새겨졌다.

어떤 사람은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또 어떤 이는 외쳐지는 '복음의 의' 앞에 '아멘!' 하며 복음이 이뤄낸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 자리

바울 역을 맡은 윤사무엘 형제(19.헤브론원형학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 자리였다고 고백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이전에 이 역할을 맡았던 선배의 모습을 흉내내기에 급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야! 마음껏 너의 복음을 선포해!'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셨어요."라고 고백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헤브론원형학교 교사 신인태 선교사는 "처음에는 학과 일정을 병행하며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제야 로마서 3장 21절의 '이제는!'이라고 외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라고 말할 때 감격을 느끼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변화된 생명임을 기억할 거예요"

이 로마서 입체낭송을 지켜 본 대회 참가자들의 고백도 뜨거웠다.

"말씀으로 무장된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외워



서 하는 공연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고 선포하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복음이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죽어있던 제가 말씀으로 일어서야 할 때이네요!" (황정자.53.인천필그림교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다음세대였는데, 이곳에서 다음세대를 증인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땅의 모든 다음세대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태민선.37.참좋은교회) [GNPNEWS]

섬김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앗 뜨거워! 뜨거운 국물 봉지가 터졌다... 그런데 마음은 평온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치러진 2017년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으로' 대회에서 시설관리부에 소속되어 섬기게 되었다. 주방, 배식, 컨트롤팀, 청소, 분리수거, 시설물관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부서였다. 그 중에서도 내가 속한 팀은 '특별 임무조'(이하 특임조)로 특별히 정해진 역할 없이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즉각 출동해서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섬기는 팀이었다.

팀장님으로부터 뭘 섬기게 될지 짧게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회 첫날 첫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에 한 지체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형제님! 이 국 봉지 좀 저 곳으로 옮겨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국을 옮기던 중 봉지가 터져서, 뜨거운 국물에 왼쪽 허벅지부터 발까지 데이는 사고를 당했다.

"어머! 어떡해! 괜찮아요?"라는 주변의 시골벽적인 소리와 동시에 나는 "앗 뜨거워!"라고 비명을 지르며, 신고 있던 신발과 양말을 벗고, 지체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로 급히 가서 차가운 물로 화기를 빼고 치료를 받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이



를 지켜본 지체들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말들로 어수선했고 나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아팠지만, 신기하게도 나의 마음은 평온했다. It was miracle! 기적이었다. 주님께서 후회, 자책, 연민, 원망, 걱정, 근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나의 마음을 지키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신 것이다.

'특임조'라는 직임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들을 대회장 밖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잠시 듣게 된 집회 강의를 통해 주님은 내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왔고,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는지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아무런 뜻 없이 무릎 꿇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고 하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 백성과 방언에게 전해지는 '선교 완성'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섬김은 특별한 한 사람, 혹은 대단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알게 하셨다. 또한 섬김의 결과로 화상을 입는 사고로 나타난다 할 지라도 나를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이하의 삶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다.

누가 더 좋은 역할을 맡았으며 또 더 많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진 다 해도 상관없이 어떤 역할을 맡든지 모든 자리가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자리이고, 내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을 주님께 배우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좀 더 좋은 능력, 좀 더 좋은 역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살았던가? 이러한 나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입증하는 시간을 허락해주셨다.

죄인 된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의 섬김의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조건 없이 섬긴다는 것. 비록 결과로 사고가 일어난 다해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선을 넘어서 진정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GNPNEWS] 강웅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10. 25 ~ 11. 1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김대혁 김사회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애심 김영세 김유남 김정대 김혜신 박성규 박숙자 변예준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안현숙 유자인 윤경석 윤서울 이성대 이 순 이영심 이은주 이정숙 이정희 이준진 임종태 장근혜 장미자 장복남 장영선 정윤희 조경미 조명숙 조상국 조형광 주유순 최근희 최정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목자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복원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교회 시흥지체교회 양력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열방그루터기교회 은혜선일교회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주만교회 주오통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춘천험시바교회 트리니티소프트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